

# 훈련병들의 생활관편성에 있어서 성격유형의 유사성이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similarity of personality types on military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in the dormitory organization of the trainees

이정원<sup>1</sup>

Jung-Won Lee<sup>1</sup>

요약

본 연구는 훈련소의 생활관 편성 방법을 달리하여 입대병사들의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소재 00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APL성격검사를 실시하여, 905명은 성격유형이 유사한 집단으로 생활관 편성을 하였고, 384명은 훈련소 기존 방침대로 특성 고려 없이 편성하였다. 6주 훈련기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서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60명의 분대장들로 하여금 각 성격유형별 행동 비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얻었다. 연구 결과, 유사한 성격유형으로 편성된 훈련병들이 기존방식으로 편성된 훈련병들에 비해 군부적응과 스트레스수준이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수준은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격유형이 유사한 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한 처치만으로도, 훈련병들의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도방식이나 관리방식 등의 다른 변화 없이, 생활환경만 달리해도 훈련병들의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APL성격검사, 훈련병,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obtain a positive effect on the military adaptation of enlisted soldi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by different methods of organizing dormitories in training centers. To this end, 1,289 trainees admitted to the training center in N were subjected to the APL personality test, of which 905 were organized into groups with similar personality types, and 384 were organized withou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xisting policy of the training center.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6-week training period, pre- and post-tests were performed on military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and 60 squad leaders obtained empirical data on behavior comparisons for each personality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vel of military maladjustment and stress level of the trainees organized with similar personality type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sup>1</sup> Department of Military & Police Counseling,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leejuw@iscu.ac.kr

Received(July 28, 2020), Review Result(1st: August 20, 2020), Accepted(September 4, 2020), Published(September 30, 2020)



© 2020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the treatment that organized the dormitory as a group with similar personality typ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ining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daptation of the trainees to military life can be influenced by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without any other changes in the teaching method or management method.

Keyword : APL personality test, trainees, military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personal intimacy

## 1. 서론

한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격한 훈련과 폐쇄적인 조직인 군에 일정기간 입대하여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주로 21세 전후로 발달주기 상 후기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과 청소년으로서의 의존성이 공존하며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모호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대하고 있다. 훈련소에서의 6주간은 이러한 불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에 직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병영문화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신세대 병사들이 느끼는 군 생활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군 조직은 강제적이고 통제된 계급사회로 개인의 개성과 자율이 억압된 단체생활은 병사들에게 여러 형태의 갈등과 부적응을 유발하게 한다. 군의 집단적 특징은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지휘 계통에 따라 단위 부대에 이르기까지 일체적인 행동이 중시되는 것이며, 전쟁 시 효율적 전투력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집단과 같이 체계적이고 일체되어야 하는 일원화의 원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대규모 관료 조직이다 [1]. 훈련소 입대 전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성과 개인 사생활을 중시하면서 생활했던 신세대 병사들은 이러한 군 조직의 통제된 단체생활로 인해 군 입대 후 일정기간 적응기를 겪게 된다 [2]. 일부 병사들은 군에 입대한 후 병영생활과 입대 전 사회생활과의 상이함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불편감 또는 복무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복무부적응이나 신체질환으로 전역한 병사는 평균 3,000여명에 이르고 특히 정신이상 및 심리장애로 전역한 병사는 2014년 2,700여명, 2015년 3,500여명, 2016년 3,900여명으로 평균 2,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3]. 이와 같이 군대내 강제성과 통제성이 두드러진 단체생활은 군이 요구하는 물리적, 심리적 압력과 각 개인의 성장배경, 성격, 생활태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적응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대인적 갈등과 위기소인이 잠재할 수 있다.

입대병사들은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개인의 의지와 판단보다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스트레스와 군 이탈 및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4][5]. 군 생활 중 위기가 초래되는 시점에 대한 한 연구에서 부적응 병사의 85%가 입대 1년 미만의 병사들로 보고하였다 [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병들이 입대 초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며, 이는 주로 입대 환경에 직면하여 동료 및 계급적 관계, 군의 규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대 초기 동안 신병들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적응과 심리적 안정감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 입대 초기에 부적응에 이르는 병사들은 자신과 환경 간의 융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동료 및 간부나 선임들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갈등 및 폭행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우울, 심리적 혼란, 군무이탈, 자해 및 자살 등의 위기와 사고로 나타나기도 한다 [8].

부적응이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요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군대에서 부적응은 군의 가치나 규범에 일치되는 수용되는 행동을 못하거나 대인관계 또는 부대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행동을 뜻한다 [5]. 부적응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심리적안녕감은 더욱 낮아지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이 어렵게 될 수 있다 [9]. 리프(Carol D. Ryff)는 심리적안녕감을 개인이 적응하는데서 느끼는 정서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9]. 즉 심리적안녕감이 높을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져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위기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더 기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의 동기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한편, 군에서는 작전임무에 집중하는 까닭에 장병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군 생활 중 일부 병사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미숙한 대인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선후임 병사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 어려움은 신체의 외상처럼 표면화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인간의 갈등이나 불안, 두려움, 우울 등 내적으로 숨어있던 심리적 문제가 풀아 터지면 이는 곧바로 병영 내 악성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0]. 군 부적응 원인으로 군대 내 환경, 군대문화, 과다업무, 가치관 갈등 등이 있으나 부대 내 대인관계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 [11], 특히 선임 또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2]. 군 폭행사고의 원인 중 65%가 대인관계 갈등으로 발생되며 [12], 부적응병사들이 응답한 보고에서 76%가 단체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부적응을 보고하였다 [13]. 동료 및 선임과의 긍정적관계가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안정감 및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14].

이러한 보고들은 입대한 신병들의 부적응에 주요 원인이 되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조명되어야 하며, 입대 후 1년 미만의 병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선에서는 군 입대 초기에 신병들의 심리적불편감 및 부적응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부터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하였고 지휘관들에게 병영생활상담교육, 초급간부 대상의 상담역량교육 및 또래상담병 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러나 여전히 입대 초기에 위기 및 부적응 변인을 사전에 감소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입대병사들이 서로 존중되고 수용되면서 전우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 향상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및 실험연구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성격과 환경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부합된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인관계가 적응과 부적응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조명하여왔다 [15][16]. 루터(Michael Rutter)는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결정된 기질적 특성과 행동유형을 가지고 태어나며,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적응과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15]. 이에 버틀러(Kathleen A. Butler)는 신경심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인지처리양식에 따라 성격특성을 4가지로 분류하였고,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일 수록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대인관계 및 소통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17]. 또한 던과 리타(Kenneth J. Dunn & Stafford Rita)는 자신의 성격 특성과 타인의 성격특성이 일치될 때 소통이 효율적이게 되고 대인관계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16]. 이와 같이 모든 개인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모두 동일한 행동양식을 취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고 또 어떤 사람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에는 개개인의 성격 특성이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격특성을 고려한 환경처치가 병사들의 초기 부적응과 대인관계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연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APL성격특성 검사의 기본적 이론을 세운 Butler는 뇌의 주 관리 기능인 전두엽의 사고기능과 좌우반구의 기능 편재화를 기반으로 순차처리(S-Successive)와 동시처리(R-Random), 구체적사고(F-Fact), 추상적사고(A-Abstract)라는 4가지 사고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7]. 순차처리(S)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연속적인 자극을 분석하는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며, 변칙처리(R)는 제시된 자극을 동시에 한꺼번에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전문화된 뇌로 종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구체적사고(F)는 눈에 보이는 사실감각을 기반으로 오감을 사용한 사고를 전담하며 추상적사고(A)는 정보를 개념별로 나누고 분석하는 개념적 원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Gregorc 등은 이 4가지 인지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성격유형을 4가지(SF, SA, RF, RA)로 분류하였다. 먼저 SF(Successive-Fact)유형은 순차적 인지처리와 구체적인 사고기능이 우수하며, 성격특성은 규칙적, 정확성, 꼼꼼함, 완벽추구, 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정한 틀과 지시를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 SA(Successive-Abstract)유형은 순차적 인지처리와 추상적인 사고기능이 우수한 군으로, 성격특성은 목표지향적, 진취적, 통찰력이 높고, 합리적이며, 자기주장 강하고, 논리적 의사소통에 능한 경향을 보인다. RF(Random-Fact)유형은 변칙적 인지처리와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이 잘 발달되어있다. 성격특성은 친밀한 의사소통능력이 강하고, 자율적이고 정서적이고 예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 RA(Random-Abstract)유형은 변칙적 인지처리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이 잘 발달되어있다. 성격특성은 자율적, 창의적, 직관적,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행동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18].

이러한 성격특성을 기초로, 유사한 성격유형을 보이는 신병들끼리 생활관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서로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도 더 편안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함께 심리적안녕감의 증가와 군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분대장들로 하여금 각 성격유형별로 행동을 관찰하고 유사성격유형집단과 기존 편성집단 간 행동비교를 통해 근거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에 처음 입대하여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신병교육을 받으며 군의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무작위 생활관 편성방식을 변형하여 유사한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생활관을 편성하고, 신병들의 군부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수준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이후, 군 입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개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 가설 1.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군부적응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심리적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 가설 3.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대인관계친밀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 가설 4.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일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N소재 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기반 APL성격검사를 실시하여, 성격유형 중 인지처리 특성이 유사한 병사들 905명을 대상으로 유사성격유형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고, 384명은 훈련소 기존 방침대로 특성 고려 없이 혼합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다. 6주 훈련기간의 시작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에서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

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60명의 분대장들로 하여금 각 성격유형별 행동 비교 및 기존 방식의 혼합집단과의 행동비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얻었다.

### 3.2 측정도구

#### 3.2.1 군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군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윤희 [1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로는 심신상태, 수행의지, 직무만족, 환경태도 영역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로 산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수행의지 .85, 직무만족 .81이었다.

#### 3.2.2 대인관계친밀감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친밀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닐슨, 잭스, 아담스(I. K. Nielsen, S. M. Jex & G. A. Adams [2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으로 '친밀감 형성기회'와 '친밀감 확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확대 척도의 6문항을 훈련병들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 3.2.3 심리적안녕감

본 연구에서 심리적안녕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리프(Caril D. Ryff)가 개발하고,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1]가 수정한 심리적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자아수용 .81, 긍정적 대인관계 .72 이었다.

#### 3.2.4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호와 이동원 [22]이 개발한 스트레스측정도구에서 대인관계영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6 이었다.

#### 3.2.5 APL성격검사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APL(Aptitude;적성, Personality;성격, Learning;학습)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APL검사는 버틀러의 인지사고 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이세용이 개발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순차처리 .80, 동시처리 .80, 구체적사고 .71, 추상적사고 .85 이었다.

### 3.3 프로그램 진행절차

N소재 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입대병사들을 대상으로, APL성격검사를 실시하여 4가지 유형 (SF, SA, RF, RA)으로 분류하였고, 905명을 각 동일한 유사성격유형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고, 384명은 성격특성 고려 없이 기존 방식대로 편성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 편성 외에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고, 6주 훈련기간의 시작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에서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 척도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고, 신병들을 관리하는 60명의 분대장들로 하여금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행동 비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얻었다. 사전-사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군부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수준에 대한 사전검사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과 혼합군으로 편성된 집단의 사전검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전과 사후에서 비교하였다.

[표 1]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Table 1] Pre-test homogeneity comparison between similar personality type groups and random groups

관련변인	시기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혼합집단 (n=384)	
		M	SD	M	SD
군부적응	사전	28.757	(3.915)	29.100	(4.012)
심리적안녕감	사전	22.840	(2.955)	23.103	(3.370)
대인관계친밀감	사전	9.600	(0.860)	9.670	(0.910)
스트레스	사전	20.643	(3.154)	20.200	(2.383)

### 4.2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 간 및 사후검사에 대한 t검증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으로 생활관 편성 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사성격유형 집단에서 군부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집단인 혼합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군부적응수준은  $t(1287) = -2.40$ ,  $p < .05$ , 스트레스 수준은  $t(1287) =$

-2.50,  $P < .05$ 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심리적안녕감 수준은  $t(1287) = 4.42$ ,  $p < .001$ , 대인관계친밀감 수준은  $t(1287) = 5.20$ ,  $P < .001$ 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유사성격유형집단의 군부적응과 스트레스수준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t=4.12$ ,  $p < .05$ ,  $t=3.60$ ,  $p < .05$ ),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수준도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t=5.51$ ,  $p < .01$ ,  $t=5.25$ ,  $p < .01$ ). 그러나 혼합집단에서는 군부적응, 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 수준이 사전과 사후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 간 차이 및 사전-사후 변화

[Table 2] Differences between similar personality-type groups and random groups and pre-post-change

관련변인	시기	사전 M(SD)	사후 M(SD)	집단간차이 t	사후검증 t
군부적응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28.757 (3.915)	23.214 (3.895)	-2.40*	4.12*
	혼합집단 n=384	29.100 (4.012)	28.773 (3.370)		
심리적 안녕감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22.840 (2.955)	26.471 (3.231)	4.42***	5.51**
	혼합집단 n=384	23.103 (3.370)	23.933 (1.224)		
대인관계 친밀감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9.600 (0.860)	11.857 (1.009)	5.20***	5.25**
	혼합집단 n=384	9.670 (0.910)	10.010 (1.224)		
스트레스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20.643 (3.154)	17.214 (2.926)	-2.50*	3.60*
	혼합집단 n=384	20.200 (2.383)	19.867 (2.535)		

\*  $p < .05$ , \*\*  $p < .01$ , \*\*\* $p < .001$

### 4.3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 간 관찰된 특성

APL성격특성검사를 실시한 후 905명은 성격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SF, SA, RF, RA)으로 분류하여 각기 유사한 성격유형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고, 384명은 성격특성 고려 없이 생활관을 편성하였다. 신병들을 훈련하는 60명의 분대장들에 의해 생활관 편성 시부터 신병교육을 종료한 시점까지 6주 동안 관찰된 신병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두 집단을 관찰한 결과, 4가지 성격유형의 특성이 버틀러(Kathleen A. Butler)가 제시한 4가지 각각의 양상에 일치된 행동들로 나타났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4가지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이 혼합집단에 비해 입대

초 집단응집력과 친밀감형성이 더 신속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표 3] 6주간 관찰된 각 유형별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for each type observed for six weeks

유형	6주간 관찰된 훈련병들의 특성
S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 집단에 비해 교육태도가 좋음.</li> <li>· 혼합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 후 실행태도가 좋음.</li> <li>· 내무생활시 지시와 통제에 잘 따름.</li> <li>· 알아서 하지는 못하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함.</li> <li>·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함.</li> <li>· 동기들 간 생활관 정리 및 기타 임무들을 잘 도와줌.</li> <li>· 혼합집단에 비해 서로 의견을 잘 소통하고 응집력 높음.</li> <li>· 혼합 집단에 비해 훈련병들이 빠르게 적응함.</li> </ul>
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시가 내려지면 서로 임무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함.</li> <li>· 서로 신병훈련가이드북을 활용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함.</li> <li>· 분대별 토의 시 발표과제에 대한 개인별 발표능력이 우수함.</li> <li>· 개인주장이 강하나 책임감이 강하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li> <li>· 혼합집단에 비해 분대원들과 관계가 좋으며 응집력이 강함.</li> <li>· 혼합집단에서 약 2주경에 생기는 친밀감이 본 집단에서는 3일 만에 나타남.</li> <li>· 혼합집단에 비해 동기생들 끼리 서로 잘 돕고 빠른 적응을 보임.</li> </ul>
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집단에 비해 교육시간에 집중을 잘하지 못함.</li> <li>·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 반복연습을 싫어함.</li> <li>· 주입식 교육 보다는 팀 단위로 훈련이나 토론 활동시 더 적극적임.</li> <li>· 어떠한 지적에 ‘그때뿐이야’할 정도로 다소 진지하지 못함.</li> <li>· 칭찬에 반응이 좋고, 더 적극적인 경향.</li> <li>· 분대장이 없을 때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남.</li> <li>· 혼합 기수에 비해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만 서로 대화를 너무 많이 함.</li> <li>· 혼합 기수에 비해 동기들 간에 친밀감과 응집력이 빨리 나타남.</li> </ul>
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훈평가 토의식 진행시 서로 물어보고 서로가 피드백 하는 모습이 좋았음.</li> <li>· 자발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짐.</li> <li>· 실습 진행 시 틀에 박힌 방법보다는 팀 단위 자율적인 방법을 선호함.</li> <li>· 관심분야에 대해 교육간 많은 질문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함.</li> <li>· 자율성이 강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함.</li> <li>· 혼합 집단에 비해 입대 첫날부터 동기들과 즐겁게 떠들며 사이좋게 지냄.</li> <li>· 입대 첫날부터 어색함 없이 자유롭게 밝고 활달함.</li> <li>· 훈련병 간 마찰이 없고, 군 생활 적응이 빠름.</li> <li>· 혼합집단에 비해 빠른 응집력과 서로 협력 잘함.</li> </ul>

## 5. 논의

현재 훈련병들의 생활관 편성은 임의적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입대병사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생활관을 편성 후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 편성 방법을 처치한 것 외에 다른 처치는 없었다.

이를 위하여 APL성격특성검사를 실시 후 유사한 적성(A)과 성격(P) 및 학습특성(L)을 보이는 군들끼리 생활관을 편성하였다. 연구결과, 입대초보다 6주후에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이 기존의 혼합편성 집단 보다 군부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고,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혼합집단에서는 대인관계친밀감에서만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신병들을 훈련하는 60명의 분대장들을 통해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과 성격 고려 없이 편성된 혼합군을 관찰한 결과, 4가지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이 혼합군에 비해 입대 초 집단응집력과 친밀감형성이 더 신속하게 나타났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자신의 성격특성과 타인의 성격특성이 일치될 때 소통이 효율적이게 되고 대인관계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던과 리타(Kenneth J. Dunn & Stafford Rita)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분대장들을 통해 관찰된 각 유형별 성격특성과 비교집단과의 행동비교는 Butler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생활관편성 방법만 달리하여도, 입대초의 병사들에게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 문제에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지나치게 단순한 생활관 편성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생활관 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효과적 생활관 편성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 연구들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군에서는 입대 초 병사들의 군부적응을 줄이고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형성 등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되어왔다. 생활관편성 방법은 이미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필수적인 진행절차들에 포함된다. 기존의 방법을 과학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변형한다면, 비용과 시간 효율적인 측면과 더불어 방법론이 매우 간단하여 바로 현장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격유형에 집중하여 혼합집단을 유사성격유형집단과의 단순 비교그룹으로만 적용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혼합집단들의 편성과 함께 함께 생활관에 편성된 상이한 성격유형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소통 전략에 대한 교육 처치를 가한 후의 군생활적응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References

- [1] M. S. Ha, "A Study on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f the soldiers under recruit training on adaptation to a barrack life",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DaeJeo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3546714>.
- [2] G. H. Ryu, *Counseling Skills Training*,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09.
- [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stablishment of military discipline and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2016.
- [4] M. O. Shin, "An analytical study of psychological anxiety of replacement training center recrui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9.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8950535>.
- [5] H. C. Lee, "A Study of Difference in Impulsiveness, coping style and Sociability between Maladapted soldier and General private soldie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9.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697377>.
- [6] H. J. Jung, J. C. Kwon, E. R. Jeon, Y. E. Cha, K. O. Min, "The Effect of Korean Style Communic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upon New Enlisted Soldiers Human Relations and Adaptability in Service",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2, no. 2, September 2014, pp. 82-95.
- [7] M. K. Hong, "Study on the assimilation plan of a transferred recruitment in troop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Regional Development, Han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7982478>.
- [8] Y. K.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lf-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soldiers in military service in the barrack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u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2268762>.
- [9]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December 1989, pp. 1069-1081, doi: 10.1037/0022-3514.57.6.1069.
- [10] W. S. Shim, "An efficiency of individual counselling with Tarot card on counselling and anxiety of new generation Sea-ma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Changwo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169894>.
- [11] S. H. Seo,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s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ew generation soldi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4, April 2006, pp. 327-332.
- [12] J. W. Lee, "The Effects of apl application strategy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 communication, adaptability of maladjusted soldiers", *Crisisonomy*, vol. 12, no. 7, July 2016, pp. 63-75.
- [13] J. H. Yoo, "Effect of Ordinary Vision Camp System on the maladjusted soldier's military adjustment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ngg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2307038>.
- [14] S. C. Park, S. H. Park, J. S. Na, "Evaluation of suicidal prevention program in the military: Analysis of

- the effects of suicide prevention measures in the army”,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March 2005, pp. 183-209.
- [15] M. Rutter,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hapter 9,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S. Weintraub Eds.,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81-214.
- [16] K. J. Dunn, S. Rita, *How to Implement and Supervise a Learning Style Program*, Ass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1993.
- [17] K. A. Butler, *Learning and teaching style: In theory and practice, Learner’s Dimension*, 1988.
- [18] A. F. Gregorc, “Gregorc learning styles and achievement in anatomy and physi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vol. 268, no. 6, June 1995, pp. 56-60. doi: 10.1152/advances.1995.268.6.S56.
- [19] Y. H. Lee, “Adaptation to military life”, Ma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3.
- [20] I. K. Nielsen, S. M. Jex, G. A. Adam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ores on a two-dimensional work place friendship”, *Education and Psychology Measurement*, vol. 60, no. 4, December 2000, pp. 628-643.
- [21] M. S. Kim, H. W. Kim, K. H. Cha, “Analysis of ten compositional concept of psychological well-being: targeting Korean adult”, *Korean Journal of Social of Personal: Psychology*, vol. 15, no. 2, July 2001, pp. 19-39.
- [22] J. H. Kim, D. W. Lee, “A Study on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vol. 1, no. 3, December 1996, pp. 13-165.